

看護員의 勤務條件 이대로 좋은가 ——環境問題

간호원의 근무조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평소 느꼈던 소견을 병원 중심으로한 환경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근래 환경이란 말이 많이 쓰이고 또 듣는다. 환경이란 개체가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 모든 사물이나 힘의 조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체가 반응되지 않는 内外의 조건은 환경이라 할 수 없다.



고 부 열

<세그레이브 기념병원 간호과장>

여기에서 간호원의 환경이란 간호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고용주나 의사 기타 여러 직원들의 목표와 가치 및 조직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복합적인 다양한 영향을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간호의 발달로 인해 간호의 개념과 환자의 요구변화에 따라 전문적 간호원으로서의 교육수준은 향상되고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원들은 간호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병원을 중

심으로한 환경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I. 物理的 環境의 문제점

첫째 병원의 입지조건이 간호원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他職種과 다른점으로 초번과 밤번근무(간호원의 出退勤이 어렵기 때문에 불편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기숙사나 사택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

둘째 병원의 건축구조나 시설이 현대식으로 개조 내지 확충되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간호원이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중에는 재래식 병원의 낮은 구조와 필요한 시설의 결여로 인한 노력과 시간의 낭비가 많기 때문에 오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셋째 간호원이 업무상 취급하고 있는 비품이나 공급품 조달이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다.

지난 5월 14日 부산 모병원에서 있었던 신생아 화상 번사사건도 고장난 전열기구인 보온판 주터 때문에 간호원이 피해를 입은 一例로 생각된다.

II. 경제적 環境의 문제점

첫째 행정자나 관리자의 간호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수 규정이 불합리 하다.

간호사업이 희생과 봉사를 직업철학의 기저로 하고 있지만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지위보장과 향상은 필수적인 요구라고

생각한다.

간호원은 엄연히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면허시험을 거쳐 특수 면허증을 소지한 전문직으로서 병원에 있어서 환자진료를 위해 있는 Health team의 일원인데, 같은 Team member인 의사나 약사, 기타 직원에 비해 심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당한 보수는 근무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업적 발전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킨다.

둘째 병원경영자의 영리적 운영관계로 직원의 적정 T.O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복지와 사회개발에 따라 환자진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따라서 여러모로 다양해진 간호업무의 필요도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데, 간호원의 정원은 오래전에 제정한 법정간호원 수의 최저기준에도 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건인간호원 업무도 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보험 실시와 더불어 밀려드는 환자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무질서한 의사들의 회전과 처치, 그리고 계속되는 수술보조업무가 폭주되어 심지어는 파로로 사망까지 하게 된 충남 모병원의 故 김춘희 간호원의 例는 많은 간호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지 않은가. 따라서 노동법에 의해서 여성근로자에게 허용되는 휴가나 병가, 産假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들에게는 비밀비재한 현실이다.

Ⅲ. 사회적 환경의 문제점

첫째 간호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간호업무에 관한 것이 애매모호해서 마치 간호원은 의사의 보조자 인양 규제해 놓은 점이다.

간호원의 업무를 7개 기능분야로 나누어서 ① 환자를 돌보아 주고 감독하는 일. ② 증상 및 반응에 대한 관찰. ③ 간호기록. ④ 보조직을 지도 지휘 감독하는 일. ⑤ 전문적 간호기술의

실시. ⑥ 환자와 대중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회동사등 6가지가 독자적 기능이고, 나머지 진료보조, 즉 의사처방과 책임 아래서 실시되 약물투여, 특수치료보조 등의 오직 하나만이 독자적 기능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들 가지 기능분야중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간호원들에게는 주어진 현재의 환경역전에서 ⑦ 진료보조, 즉 의사처방과 책임 아래서 시되는 약물투여 및 특수치료 보조 동등으로 근무의 일과가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時間관계로 각 병원에 의하여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여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이와같은 상태가 계속다면 병원간호 업무란 의사의 처방과 책임에서 진료보조나 하고있는 비특수적 기능에서 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는 또한 숙달된 간호원으로 대치할 수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관적으로 생각해서 3~4년씩이나 전문교육을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간호업무란 무엇이?

의사는 단독업무자로서 환자의 진료에서 그 추후간호까지 다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비하여, 간호원의 법적보장을 볼 수 있는 독자적 기능이란 환자를 도와주고 감독하고 감독하는 일과 증상 및 반응에 대한 관찰 기록 등이라면 환자의 보호자도 할 수 있고 보조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고집할 있겠는가?

이러고도 전문적이라고 지부할 수 있다면 용기가 부럽다.

그렇다면 간호원만이 할 수 있는 전문업무 무엇인가?

적어도 전문적 이라고 한다면 그 영역의 다른 간호원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아무도 할 수 없는 행위라야만 될 줄 안다. 물론 의료간호행위를 하려던 간호원 면허를 또 취득된다는 조건이 따라야만 되겠다.

다시 말해서 간호업무가 직업적으로 의사에 예속되어 있지 않아야만 전문적이라고

하게 자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서적 환경여건이다.

간호원의 직무가 항상 저지분하고 약해 나는 것을 단적야만 하고 피를 땀과 죽음을 지키는 역경을 늘 긴장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괴롭고 불편한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봉사를 해야만 하고 슬프고 의로운자에게는 위로를 해야 하는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없지않다. 그리고 간호원의 업무가 야간근무와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관계로 全職원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고 일과후의 時間의 연속성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여가를 선용하는 데에도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셋째 정신적 환경여건 이다.

병원관리자의 관리철학 부족으로 근무조건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간호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간호원의 의견이나 제안이 잘 반영되지 않으며, 치료중심의 시설이나 직제에 있어서 의사들을 우대하고 간호원을 의사의 보조자나 조수로 착각하고 의사와 간호원의 상하관계를 조작하는 의료인 또는 일반직의 잘못된 인식은 인격적 차별대우를 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간호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신환경요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병원경영은 합리적인 관리철학에 의해서

운영 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서 간호원의 보수는 학력과 직업의 전문성에 합당한 보수로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의료인의 적정 T.O를 확보함으로써 간호원으로서 하여금 같은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간호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 되어야 한다.

의료법을 모태로 한 간호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간호원으로 하여금 단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되어 있어야만 간호원 스스로가 직업적인 긍지를 가지고 전문적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간호원 보수교육의 제도화가 必要하다.

임상간호원으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늘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의학과 그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시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이 제도화 되어서 간호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현직에서 근무한 후에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일단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호봉승진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상급직위 승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거친 후에 적정 T.O에 의해서 승진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직급 자격이 일원화 되어야 겠다.

끝으로 病院당국은 발전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과감한 체재개선을 단행하여 간호원으로 하여금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提言하는 바이다.

